

美 도서관에서 잘 없어지는 책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들은 무엇인가

뉴욕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취지에 걸맞게 갖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의 중앙연구 도서관의 경우 이곳 司書들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130만명의 열람자들이 들락거리고 있으며 전체 서고의 길이만도 38마일에 이른다. 또한 전화문의만도 한 해 23만5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전화문의들은 '13'이란 숫자가 왜 忌數인지, 또는 르완다國(country of Rwanda)을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따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책이 가장 빈번하게 도서관의 서가에서 잘 사라지는가, 혹은 돌아오지 않는 책들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잘 훔쳐가는 책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주일마다 紙上을 통해 발표되는 베스트셀러 목록은 우리들의 독서 기호도를 알려 주는 척도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고작 유치원에서도 배울 만한 얇은 지식을 담은, 이룰테면 식이요법에 관한 책들에 손쉽게 20~30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풍요로운 중산층들의 경제능력을 보여주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에 반해 '가장 많이 훔쳐가는 도서목록'(The most-stolen list)은 사람들이 참으로 원하는 책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1~2주의 대출기간을 넘기고서도 돌려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소유하고 싶은 책들인 셈이므로. 이 책들에 관한 한 사람들은 체포나, 적어도 대중앞에서의 창피를 무릅쓰고 '도둑질'을 행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책도둑질이 어떤 전문적인 도둑질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훔치는 이들은 대부분 지도적 인사들이다"라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의 도서계 알란 로빈슨씨는 말하고 있다. 언론인, 신학교 학생, 법률가, 의사, 교사들, 심지어 司書들 역시 책을 훔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산 마리오의 헌팅턴도서관장인 윌리엄 모페트는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야말로 책을 가장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책의 값어치를 평가할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도둑맞은 책들을 정확히 통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책도둑들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온갖 꾀를 다 부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 만권의 책더미 속에서 사서들이 이들을 잘못 분류하여, 책이 도서관내에 있으면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적 수치로써 가늠하기 어렵지만 범죄자의 몽타주를 그리듯이 여러 傳聞들을 종합하면 분실된 책들의 종류와 그 순서를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낼 수는 있다. 다음은 이들을 10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성경

가장 많이 훔쳐가는 도서관의 책으로서 단연 「성경」이 으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훔친다는 사실은 놀랍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도둑들(?)은 성경은 '자비로우신' 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므로, 성경을 훔치는 행위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라

해서 하느님이 벌락을 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도서관과 서점측에서는 성서를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온갖 간교한 꾀를 다 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실 이를 훔쳐내는 데는 그다지 큰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마치 호텔의 투숙객이 쉽게 호텔을 들고 날 수 있듯이 말이다. 이렇게 성서가 많이 도난당하는 것은 미국호텔연합회 대변인인 마이클 켈리가 말하듯 "성서란 수건이나 비누같이 가정 상비품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저주, 주문, 그리고 마법

「呪呪, 呪文 그리고 魔法」. 사학자 로버트 단톤이 그의 명저 「최면술과 프랑스 계몽주의의 종말」에서 지적하듯 프랑스 혁명 전야의 독서대중들은 루소보다는 최면술사나 연금술사 그리고 마법술사들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달러가치의 하락과 정치체계의 혼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 코헨의 「저주, 주문 그리고 마법」과 같은 책들을 통해 신비주의 속에 침잠하게 만드는 것 같다. 「고스트 바스터」와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이 도서관에서도 연출되고 있다고나 할까?

사서 보기는 아까운 입문서들

「군 입대용 수험서」(Practice for the Armed Forces Test), 「간소한 상처치기」, 「최고를 찾아서」 등의 입문서들이 도난 서적들의 버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가장 많이 도난되는 것들이기도 한데, 많은

이들이 이를 구입하려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열람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거론한 책들 다음으로는 「공무원 수험서」와 대학입시를 위한 지침서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항목에 집어넣을 수 있는 책들로는 정원 가꾸기와 자동차정비 관계서적, 그리고 의학상식과 스트레스 해소법, 또는 특히 맨하탄 지역에서는 부동산관계 정보서적이 많이 분실되고 있다.

성생활 관계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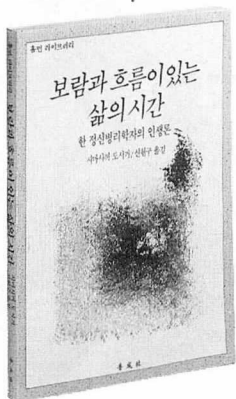
「성생활의 즐거움」(The Joy of Sex). 성생활 관계 책자들은 위의 '지침서' 항목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따로 독립시켜 한 항목으로 삼은 것은 우선 이들이 부피가 큰 책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부끄러움'이다. 즉 헌팅턴 도서관장인 모페트씨가 지적하듯 "사람들은 섹스에 관한 책을 서점에서 구입하는데는 마치 콘돔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처럼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합니다. 약국에서 콘돔을 구입할 때 '내가 쓸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라는 변명을 하듯이 말입니다." 꼭 섹스에 관한 책만이 아니라 스포츠 사진집 가운데 수영복을 입은 만나체 사진들도 많이 분실되는 책들이다.

이 책을 훔쳐라

「이 책을 훔쳐라」(Steal This Book). 애비 호프만의 「이 책을 훔쳐라」와 같은 반체제 서적들은 도둑질을 부채질하고 있다. 많은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이고, 또한 가장 인간적인 삶인가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은 오늘로부터 21세기 삶의 양식을 찾아가는 핵심적인 주제이며 가장 바른 지향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이 주제를 위한 안내자이기를 목표로 한다. 보다 간결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운동체이기를 스스로 기원한다. 그러므로 「휴먼라이브러리」는 철학·문학·과학, 인간의 생활과 수장록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 총서의 목록을 이끌어낼 것이다.

普成社 서울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9-0784



보람과 흐름이 있는 삶의 시간

왜 우리는 방황하는가. 이 책은 '사는 보람'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정신병리학자의 연구서다. 오늘날 소위 탈 냉전, 탈 이데올로기 시대를 살아가는 데 길잡이요, 대응논리가 될 것이다. 전후 일본의 장기 베스트셀러!
주요목차 : 삶의 터득은 유아기로부터 사는 보람을 찾아서 불행은 불시에 덮인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보람 육십에 수학 이별
신국판 232p 값 3,500원
시마사끼 도시기/신현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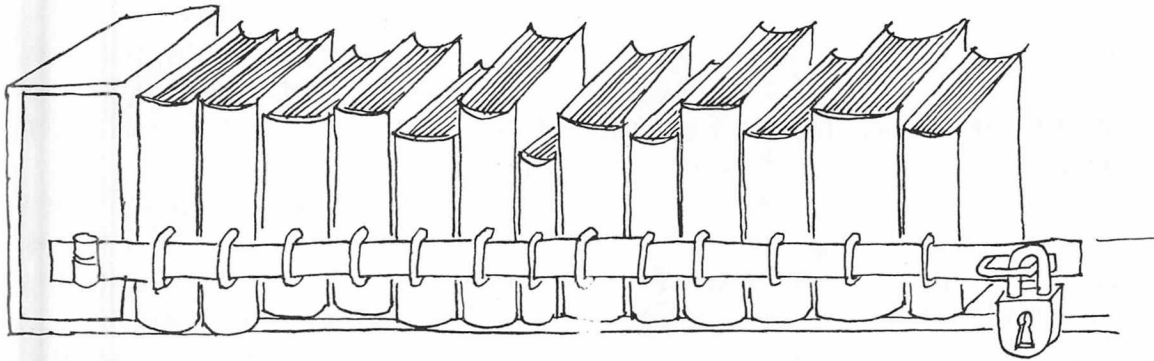
• 문화 차이와 인간관계
에드워드 스투어트 著·김성경 譯
비교문화론적 시각에서 美國人의 통념·가치관·사고방식·행동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책.
값 3,500원

• 인간속의 흔적
허세욱 수상록
문명비판, 인간 본체의 모색과 확인을 위하여 고향에의 회귀, 자연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는 허세욱 교수의 아포리즘
값 3,500원

• 된사람 난사람 든사람
교육평론가 김영만수상집
초·중·고 교사와 잠지편집인을 거쳐 현재 교육 평론가로 활동중인 저자의 자전적 수장록
값 3,500원

• 中國病
孫觀漢 著·姜啓哲 譯
물리학 박사이며 중국원자과학의 대부분 칭송받는 저자가 中國人의 병적인 추악성을 파헤치면서 비판을 가한 책
값 3,800원

• 인간을 위하여
金容九 단상록
문학적 수필, 학술논문 이상의 깊은 사색과 사상이 담겨 모든 지성을 점철하게 하는 책
값 3,500원



흑인작가들의 작품들, 이를테면 말콤 X나 안젤라 데이비스의 전기도 많이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반체제 서적의 항목 속에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호프만의 주제가 출판인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그는 이 책을 私費로 출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도서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거의 도난을 당하였는데, 때문에 근래 이 책의 보급판 가격조차 55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시중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책이 되고 있다.

표준 연방稅 해설집

「표준 연방稅 解説集」(Standard Federal Tax Reporter). 이 책은 마피아 재판 증언록과 마찬가지로 법대 도서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먼저 보는 학생이 곧 이 책의 임자가 되고 만다”고 한 법대 도서관 직원은 귀엽한다. 법대도서관은 요즘 큰 곤경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간의

경쟁심 때문인 것 같다. 예비 법률가들이 책을 훔치는 것은 꼭히 자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그 책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法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에 걸맞게도 법학과 학생들은 책 도둑질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데 곧 그들이 본 책을 다른 서가에 꽂아둠으로써 동료들이 볼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붉은 망아지

「붉은 망아지」(The Red Pony).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古典을 읽히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문학작품들이다. 뉴욕 공공도서관의 역사상 최초의 책도둑은 16살 먹은 소년이었다. 1897년 이 소년은 숙제를 하기 위해 책을 훔쳤던 것인데 도서관측은 당시로서는 가혹한 액수인 25달러를 그 소년에게 벌금으로 물렸다고 한다. 요즘의 소년들은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세익스피어의 작품들, 그리고 옛날 청년들이 즐겨 읽던 「호밀밭의 파수꾼」

과 같은 책을 곧잘 훔친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기껏 100여페이지에 불과한 「붉은 망아지」와 같은 소책자가 다른 명작들에 비해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한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스럽다. 우리들 고등학교 시절에는 「붉은 망아지」라면 읽을 만한 문학책들 가운데 가장 짧은 것에 속했기 때문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백과사전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다. 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전을 구입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히느니 손쉽게 훔치는 방법을 택한다. 가장 일반적인 절도방식은 도서관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권씩 훔쳐내어 완질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완질은 물론이고 대사전의 경우 1권짜리라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것 역시 손쉽게 훔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한 여성이 뉴욕 공공도서관의 수위앞에 멈춰서서 기절하여 쓰러진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가랑이 사이에

웹스터 대사전을 끼우고는 어정거리며 걸어나 오다가 수위앞에서 기절해버린 것이었다.

高價의 희귀본

「미국의 새들」. 존 제임스 오두봉의 컬러판 서적인 「미국의 새들」은 감히 훔치기 힘든 책이다. “이책은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세워놓으면 4~4.5피트에 달합니다”라고 펜실 버니아대학 희귀본 수집책임자인 다니엘 트레 이스터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가장 빈번하게 도난당하는 희귀본 가운데 하나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창문밖으로 훔쳐내려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더욱이 근래 미술품 시장에서 불고 있는 고미술품의 高價경쟁은 희귀도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희귀본 도난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정치와 중국로비

「미국정치와 중국로비」(The Chinese Lobby in American Politics). 이책은 공공의 목적으로 훔쳐가는 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장개석 정권의 우파 지지자들은 로스 코옌의 1960년 저작인 이 서적이 그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서가에서 없애려고 시도한다. 나아가 그들은 이 책 대신에 그들에게 동조적인 책, 이를테면 데이비스와 헨터가 공저한 「중공의 로비」(The Red China Lobby)를 대신 끼워 넣기도 한다.

‘글 더 잘 쓰기 총서’를 기획하면서 책의 앞맹이는 역시 ‘글’이다. ‘글’이야말로 문화를 융성하게도 하고 쇠퇴시키기도 한다. 이 총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덟 가지 주제를 뽑았다. 글쓰기에 관한 원론적 구실과 글의 힘이 갖는 인간 생활과 역사의 철학적 탐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한 기법을 가르치는 보편성 있는 교과서로서 이 총서는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普成社 서울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9-0784



1.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 金炳元 지음
값 3,500원
2. 논픽션 쓰는 법
헤이즈B. 제이콥스/金炳元 옮김
값 4,000원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炯 옮김
값 4,500원
4.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옮김
값 4,500원

5. 동화 쓰는 법
리 와인담/李相琴 옮김
값 4,500원
6. 그림책 쓰는 법
* 청소년 우량도서
엘렌 E.M 로버츠/金正 옮김
값 5,000원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 88년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엘렌 F. 심버그/高廷基 옮김
값 4,000원
8. 글힘 돌음
* 청소년 우량도서
高廷旭 지음
값 4,500원